

수치 “광주의 자유·인권 향한 욕망에 큰 감동”

명예 광주시민증 받고 광주인권상 9년만에 수상 5·18묘지 방문 넋 기려

광주를 방문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68) 여사는 지난 31일 “광주의 자유·인권을 향한 욕망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치 여사는 이날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명예시민증과 뒤늦은 광주인권상을 수여한 뒤 “한국에 오기 전 날씨가 매우 춥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광주 시민의 따뜻한 환대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줬던 광주 시민들의 우호에 감사 드린다. 어려운 시기 보여준 우정은 특히 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라며 “미얀마 민주화 과정에 있어 작·간접적으로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광주 시민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수치 여사는 또 “평화와 민주, 안전이 달성하기 쉽지 않은 가치지만 인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젊은이 등 많은 사람을 위해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단체 회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일선 5개 구청장, 미얀마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운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그 좋은 날 광주를 방문해 준 수치 여사께 감사드립니다”며 “수치 여사는 광주의 정체성에 딱 맞는 언제나 보고 싶고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분이다”고 말했다.



“축하합니다” 지난 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환영식에서 수치 여사가 9년만에 광주인권상을 직접 받은 뒤 축하의 꽃다발을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또 “수치 여사를 보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분의 아름다운 인동초’가 광주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수치 여사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치 여사는 민족민주동맹(NLD) 관계자와 국내 거주 미얀마인 40명, 5·18청소년평화대사 20명 등 200여명과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추모광장에서 분향을 마친 수치 여사는 김경철·최미애·윤상민 열사의 묘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1980년 5월의 그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찬호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의 안내로 묘역을 둘러본 수치 여사는 ‘안장된 분이 몇 살에 희생 됐는지’ ‘5·18 과정 중에 여성은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는지’ 등을 물으며 “희생된 젊은이들에 위로 보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모광장 한 편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추념식수를 했다. 식수에 사용된 나무는 소나무(30년생 반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배와 환영식에는 민족민주

동맹(NLD) 관계자와 미얀마인, 사·도민·학생 등도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수치 여사를 만나고 5·18 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새벽에 동료들과 함께 출발해 광주에 도착했다는 네인마웅 탄(32)씨는 “민주화의 성지에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5·18청소년평화대사로 참여한 안

지예(18)양은 “가까이서 보니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셨다”며 “평생에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수치 여사와의 시청 면담에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평화대회 연설자(peace speaker)와 2013세계인권도시포럼 기조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당선인·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국정운영 동반자 강조 10대 공통 과제 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1일 당선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난 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이날 간담회가 열린 통의동 집무실 출입문 쪽에 자리를 잡았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던 시도지사는 오후 2시 정각 당선인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서서 박수로 맞았다. 박 당선인 들어가며 일일이 악수를 했으며 시도지사들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감사하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다.

자리에 앉은 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축하 꽃다발을 전한 뒤 일어서서 인사말을 하려 하자 박 당선인이 앉아서 하라고 권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대선 결과는)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고 지방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사말로 화답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을 거론했다. 여야를 떠나 지역을 떠나 시도지사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100%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시·도 책임자들과 대통령 당선인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가 마련한 ‘10대 공통과제’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한 명씩 돌아가며 박 당선인에게 지역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꼼꼼히 받아 적고 몇몇 건의사항에는 질문도 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에 “공통 건의사항은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당선인이 전했다.

중앙정부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지방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시도지사들의 지적에 박 당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가 많고 시간제한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과 해양수산부 청사 입지, 지역공약 재원 마련 등 민감한 이슈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박 당선인은 밝혔다.

박 당선인은 “100%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시·도 책임자들과 대통령 당선인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대선 결과는)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고 지방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사말로 화답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을 거론했다. 여야를 떠나 지역을 떠나 시도지사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치 → 수지, 미얀마 → 버마로 정정해 달라”

수치 여사·NLD 한국지부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기존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로 표기하던 것을 각각 ‘아웅산 수지’와 ‘버마’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치 여사는 지난 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내외빈과 취재진에게 본인의 이름을 ‘수치’가 아닌 원래 발음과 유사한 ‘수지’로 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역

시 독재자가 임의로 바꾼 국명(미얀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버마’로 국명을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얀마의 정식 명칭은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1988년 ‘8888 학살’이 일어난 다음해에 군사 정권이 국명 영어 표기를 ‘버마 연방(Union of Burma)’에서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으로 바꿨다.

민족민주동맹 등은 국명을 바꾼 것이 군사 정권의 독단에 의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재 주요 국제 인권 단체는 버마라는 국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는 버마, EU는 미얀마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외래어 표기법상 ‘수치’로 표기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당사자 측에서 이의를 직접 제기해 오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버마 민족민주동맹’은 기구 명칭이므로 당사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62)384-9031
222-3700

2013 봄/방/학/시/즌/ 일본여행

오사카 - 무안

KOREAN AIR 전세기 취항



협찬: KOREAN AIR

정기편 + 전세기 편도

2월 24일 _ 큐슈운천 + 오사카 4박5일 혜리(부산-큐슈) + 전세기(오사카-무안) ₩ 849,000	2월 25일 _ 큐슈운천 + 오사카 3박4일 정기항공편(부산-후쿠오카) + 전세기(오사카-무안) ₩ 899,000	2월 26일 _ 큐슈운천 + 오사카 2박3일 정기항공편(부산-오사카) + 전세기(오사카-무안) ₩ 799,000
---	--	---

왕복전세기

3월 1일 _ 오사카, 나라, 코토 **딱찬 3일** 황금연휴 무안공항 이용 ₩ 1,150,000 ~

■ 여행코리아 062)233-2626 ■ 광성관광 062)228-4111 ■ 월드항공 062)225-2255 ■ 정투어 062)956-3979 ■ 투어뱅크 062)224-0022